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니가타 현 조에쓰 시입니다



처음 뵈겠습니다. 니가타 현 조에쓰 시입니다.

당신은 니가타 현 조에쓰 시를 아십니까?

사시사철 아름답게 표정을 바꾸는 풍부한 자연에 둘러싸여 누구나 자신답게 살 수 있는 “마을”

역사가 풍기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옛날」과 「지금」이 융화하는 “때”

좀 수줍음을 타지만 따뜻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

풍부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액티비티에, 자연의 혜택을 맛볼 수 있는 최상의 먹거리. 여기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조에쓰시 명함」

굳이 말은 줄이고,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조에쓰의 매력을 다양한 사진에 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쯤이면 당신도 분명 조에쓰시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자, “찍어두기” 조에쓰 순회 여행에 —————



CONTENTS

역사·문화

- 04 벚꽃
- 06 성시 다카다
- 08 우에스기 겐신공
- 10 바다와 철도의 거리 나오에쓰

산업

- 12 생활의 터전 나오에쓰 항
- 14 조에쓰 시의 산업

놀이

- 16 조에쓰를 만끽하자!

식

- 20 극상의「쌀」
- 21 발효의 거리
- 22 자연의 은혜
- 23 지산지소

생활

- 24 이주·정주
- 25 육아
- 26 국공립 대학



역사·문화

전국시대 가스가야마 성을 거성으로 삼았던 우에스기 겐신공의 관할하였던 이 지역은 나라시대부터 에치고 국부가 놓여져 에치고 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으로 발전해 온 땅이기도 합니다. 에도시대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여섯째 아들 마쓰다이라 다다테루 공을 초대 성주로 다카다에 다카다 성이 세워져 에치고 1국과 호쿠신 4군을 다스리는 중심이 되었고, 기타마에후네의 기항지였던 나오에쓰는 다카다번의 바다의 관문으로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 후 메이지 정부에 의한 지방 행정의 재편으로 지역은 세분화되었지만, 쇼와 46 (1971)년, 지역의 거점성을 높이기 위해, 다카다 시와 나오에쓰 시가 합병해 조에쓰 시가 탄생했고, 2005년에는 당시 전국 최다인 14개 시정촌이 합병함으로써 지역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벚꽃

에치고 봄의 풍물시로 유명한 다카다 성지공원의 벚꽃은 메이지 42 (1909)년 옛 육군 제13사단의 다카다 입성을 기념하여, 재향 군인회에 의해 2,200그루의 벚꽃이 심어진 것이 시작입니다.

현재는 공원과 주변을 포함해 약 4,000그루의 벚꽃이 만발하여, 일몰과 함께 약 3,000여개의 등롱으로 비춰져, 라이트 업된 다카다성 삼중망루와 함께 해자 수면에 투영된 모습은「일본 3대 밤벚꽃」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시 다카다

다카다에는 칸막이 좁고 안쪽이 깊숙한「상가」나 납작한 돌이 깔린 바닥과 격자문이 있는「간기」의 거리 등 다카다 성의 성읍도시로서, 변창했던 옛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간기란 마을의 처마나 차양을 늘린 지붕의 호칭으로, 폭설 지대의 다카다에서 동절기 생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거주자가 사유지를 제공하여 만들어, 상조의 정신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다카다에 현존하는 간기의 총 연장은 약 12km로 일본에서 가장 깁니다.





왼쪽 / 옛 모습을 오늘날에 전해주는 돌 바닥의「간기거리」
 위쪽 / 교류와 지역 문화의 계승·발전의 거점「구 이마이
 염물상」



위쪽 /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현역 영화관「다카다 세계관」



오른쪽 / 메이지 시대의 귀중한 화양절충 건축물「구 사단장 관사」는 레스토랑으로도 활용

우에스기 겐신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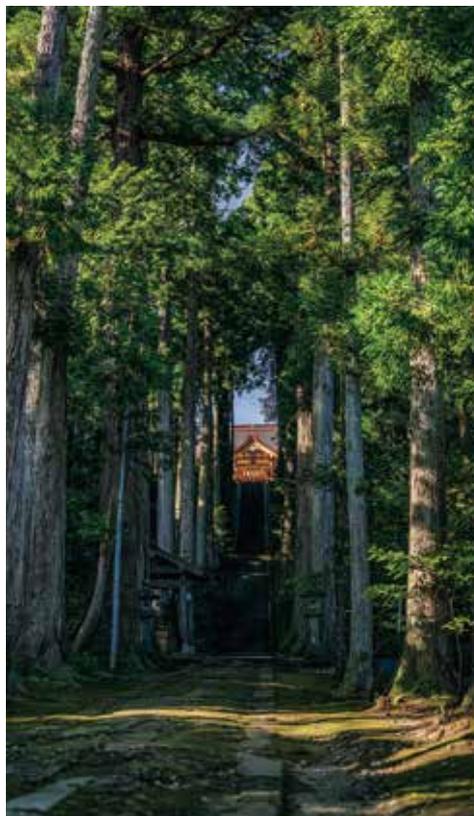
현재의 조에쓰시에서 태어나 가스야마 성을 거성으로 하여 오랜 세월 내란이 계속되던 에치고 국을 통일하였습니다. 겐신공은 다케다 신겐이나 호조 우지야스, 오다 노부나가 등 전국시대의 명장들과 전쟁을 거듭했는데, 그 싸움은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바탕한 출병이었다고 합니다. 시내에는 가스야마 성터를 비롯한 겐신공에 유래한 사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눈빛은 양양한 앞날을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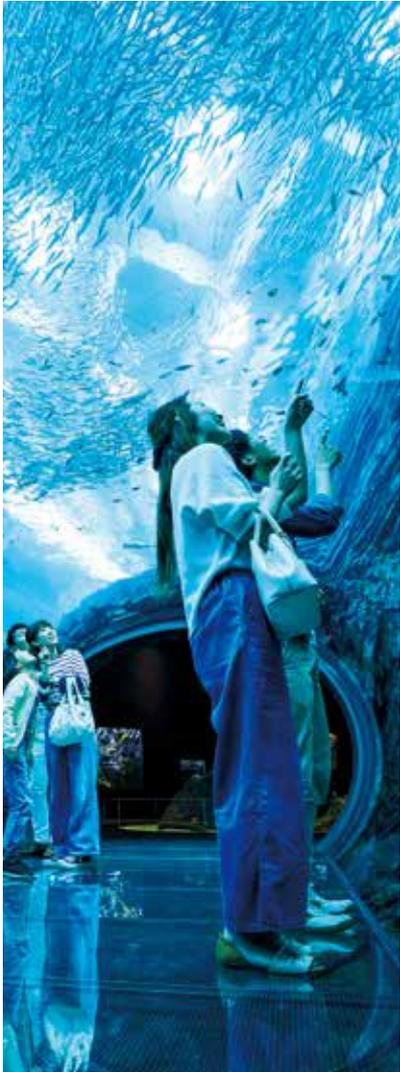
자연 지형을 교묘하게 이용해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산성·가스가야마성. 니노마루의 한 그루 은행나무가 조에쓰의 겨울의 도래를 알린다.



평온한 공기로 둘러싸인 참배길 끝에 조용히 자리잡은「가스가 신사」. 그 이름은「가스가 야마」의 유래가 되었다.

겐신공을 제신으로 하는「가스가야마 신사」그 강인함을 기려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바다와 철도의 거리 나오에쓰

연중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과 해양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수심이 얇고 수질이 깨끗한 바다. 수족 박물관「우미 가타리(바다 이야기)」는, 마젤란 펭귄의 사육 수 일본 제일. 「니가타현의 철도 발상지」로서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관광 열차나 SL의 승차 체험을 할 수 있는 레일 파크는 많은 철도 팬을 끌어 들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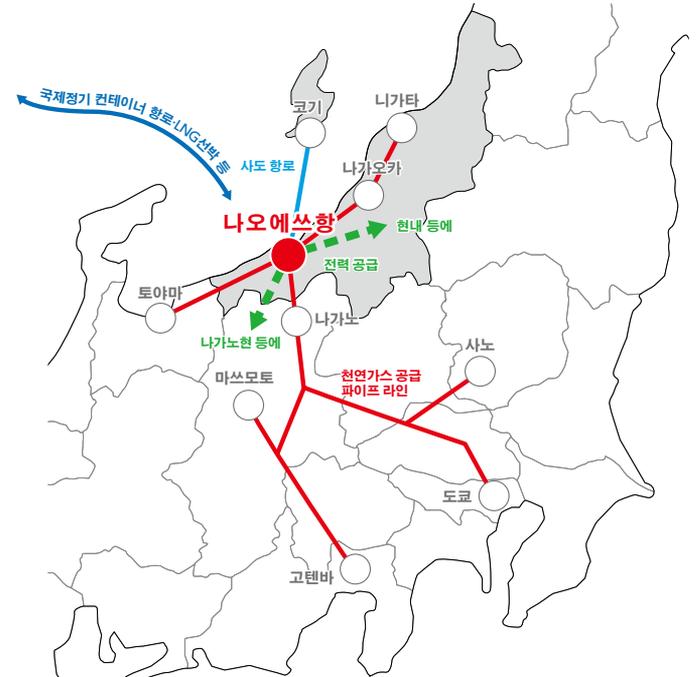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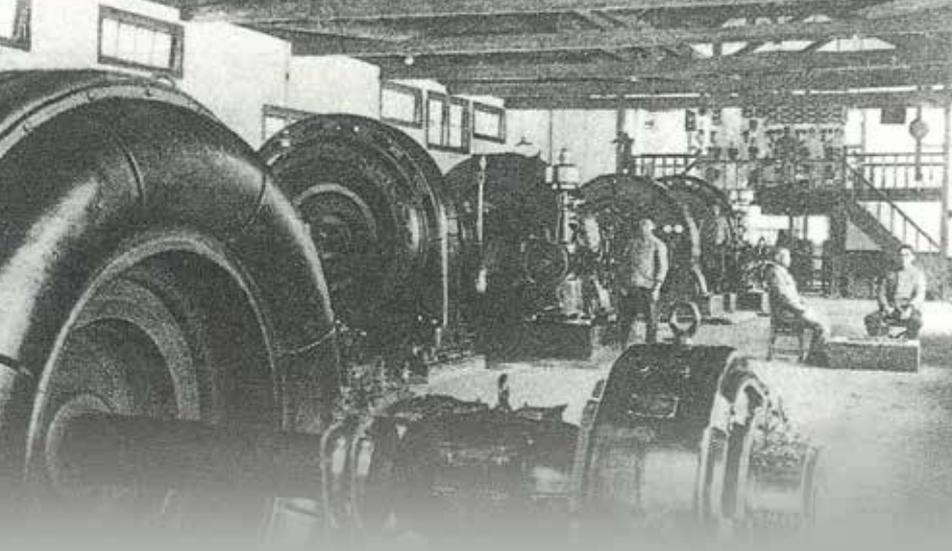


생활의 터전 나오에쓰항

예로부터 지역의 요항으로 번창하여 중요항만으로 지정되어 온 나오에쓰항은 국내, 아시아, 그리고 세계 각지의 항만과 연결되는 물류 거점으로서 ‘사도섬의 금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기대되는 사도와 본토를 연결하는 항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LNG (액화 천연가스) 를 전기나 가스로 바꾸어 동북, 관동, 중부, 북륙의 광범한 지역에 공급하는 에너지 거점으로서 경제 활동이나 주민들의 생활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조에쓰에서 탄생한 글로벌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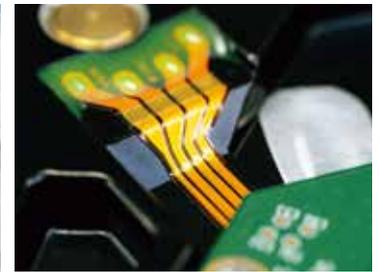
조에쓰시의 산업

조에쓰시는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로서 번창해 현재도 중요 항만인 나오에쓰항을 비롯해 호쿠리쿠 신칸센과 호쿠리쿠 자동차도, 조신에쓰 자동차도가 광역적인 교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의 산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동절기 동안 폭설의 해빙수를 활용해 국내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화학, 철강 등의 공장 조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들 기업은, 오랜 세월 같고 닮은 온리원의 기술이나 노하우에 의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무대에서도 활약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은 살아있다 세키카와 히메가와 수백전"에서 인용



주식회사 아리사와 제작소

시내에 본사를 둔 아리사와 제작소는, PC나 휴대 전화등에 내장되는 전자 재료, 항공기 내장용 패널을 시작으로, 산업 구조 재료, 전기 절연 재료 등 「짜집기, 도장, 형틀 만들기」의 일관된 제조 라인과 독자 기술로,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신에쓰화학 공업 주식회사 나오에쓰 공장

당사 발상의 공장인 나오에쓰 공장에서는, 반도체의 제조에 빠뜨릴 수 없는 포토레지스트나 의약품·식품, 건축·토목등에서 이용되는 셀룰로스 유도체, 농업 해충의 교신을 억제하는 합성성 페로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전세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니혼소다 주식회사 니혼기 공장

구 나카고무라(현 나카고구)에 설립한 니혼기 공장에서는, 닛소그룹의 주력 공장으로서 각종 화학제품이나 농약등을 세계로 수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의약품 첨가제와 신농약 제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에쓰를 만끽하자!

자연이 풍부하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조에쓰시에서는 사계절 다양한 스포츠와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페이지 44 (1911)년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군인 레르히 소령이 일본 최초로 스키 기술을 전한 것도 조에쓰시

야외 놀이 시설 뿐만 아니라 시내에는 체조 경기장과 수영장, 아이스링크 등 실내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캠핑

탁 트인 개방된 대자연 속에서 보내는, 가족이나 소중한 동료와의 한 때. 시내에는 산은 물론 언뚝, 바닷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신에쓰 트레일

새들의 지저귐,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눈부신 신록. 길이 110km에 이르는 신에쓰 트레일은 국내 유수의 본격적인 하이킹 코스



별이 쏟아지는 밤

시내 중심부에서 조금만 차로 가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별로 가득찬 밤하늘을 만날 수 있다.



야경

거리의 불빛이 내려다보이는 캠핑장에서, 귀를 기울이면 들려오는 벌레소리.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사치스러운 한 때를.

나오에쓰 해안

웅장한 산을 배경으로 아침 햇살에 빛나는 금빛 물결.
바다를 즐기는 방법은 여름 해수욕뿐 만이 아니다.



패러글라이딩

조에쓰의 바다·산·하늘이
빛어내는 절경을 독차지



BMX

국내 유수의 규모를 자랑하는 조에쓰지
BMX장은 미경험자로부터 상급자까지
즐길 수 있다.a



구미키 자전거 길

구 국철 호쿠리쿠 본선 선로 터를
이용한 해안 사이클링 로드.
해풍을 가르며 달리자.



등불 회랑

약 10만 개의 촛불이 발하는
하룻밤의 환상적인 세계. 눈 속의
따스한 불빛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최고의「쌀」

조예쓰산 쌀을 드셔 보신 적이 있나요? 갓 지은 밥의 김과 함께 부드럽게 퍼지는 향기에 윤기가 흐르고 씹을수록 우러나는 단맛 밥만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극상의 쌀.

일본 곡물 검정협회의 맛 랭킹에서 10년 연속 최고위 '특A'를 획득한 고시히카리는 꼭 권하고 싶은 맛입니다.





발효의 고장

일년 내내 습도가 높아 발효에 최적인 조에쓰시. 옛날부터 즐겨 먹어 온 향토 요리에도 많은 발효 식품이 등장합니다. 전국 감평회에서 상위 입상 단골인 청주와 된장을 비롯해 채소와 해산물 절임, 조미료, 막걸리와 와인 등, 향토의 자연과 전통이 빚어내는 조에쓰시의 발효식품. 식탁을 꾸미는, 실국이 빚어낸 발효 문화는 이 지역의 생활 문화로 스며 있습니다.



조예쓰산 식재료

생산자가 직접 채소와 과일을 반입하는 '직판장'이 시내 각지에 있어, 갓 수확한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보일 지 기대되는 시장!

설실 식품

설국 조예쓰에서 예로부터 이용되어 온, 눈을 이용한 천연 냉장고「설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눈으로 냉랭해진 공기를 순환시킨 실내는, 여름철에도 식품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야채는 저온 당화에 의해 단맛이 증가하는 효과도.



made in
JOETSU

조예쓰시가 전국에, 그리고 세계에 발신하는 특산품·공업 제품「메이드 인 조예쓰 브랜드」. 독창성, 신뢰성, 지역성 등의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일품으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지산지소 - 조에쓰를 먹자 -

눈 녹은 깨끗한 생수를 머금은 싱싱한 채소와 과일, 동해의 거센 파도에 시달리며 자란 신선한 어패류. 조에쓰 산지 재료를 이용해 요리사가 숨씨를 발휘한 요리 한점 한점 모두 분명 당신의 눈과 혀를 만족시킬 것이다.





자신답게 일하다 · 살다

다양한 업무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코워킹 공간이나 위성 사무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지지하는「장소」가 속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상가를 리노베이션해서 사는 것도 좋고,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여 사는 것도 좋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조에쓰의 매력입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나날을 모든 어린이들에게

교정에서 벌레잡기도 하고 진흙투성이가 되어 모내기나
벼베기도 하고, 점심에는 현내 쿵쿨에서 수차레나 우승한, 먹고
또 먹고 싶어지는 학교 급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조에쓰시에서 아이들은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되고 싶은 「미래」를 응원하는 국공립 대학



국립대학 법인 조에쓰 교육대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과, 더 깊이 배우고 싶은 「선생님을 위한」 조에쓰 교육대학.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인간애, 상상력 있는 교원을 양성합니다. 자연과 역사, 문화를 타고난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지닌 이 문교의 땅에서, 지역에 뿌리를 둔 교원 양성을 실현합니다.



공립대학법인 니가타 현립 간호대학

생명의 소중함,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인간성을 함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간호 실천자를 양성합니다. 보건, 의료, 복지의 종합적인 시야를 배양하고 관련 분야의 사람들과 연계·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실천을 통해 전체를 조정·관리하는 능력을 몸에 익힙니다.





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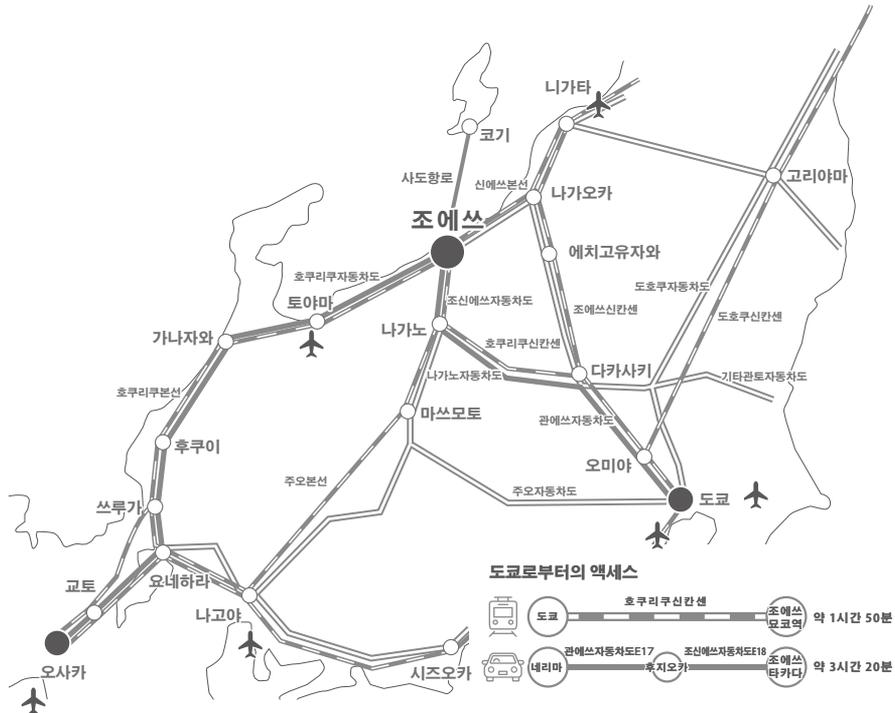
조에쓰 순회 여행은 어떠셨나요?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조에쓰의 매력이 전해졌을까요?

이 책이 당신과 조에쓰(上越)가 가까이 다가가는 여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엔 실제 오감으로「실물 조에쓰」를 체험하러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에쓰(上越)에서 당신의 방문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에쓰시 시세요람

발행일/2023년3월
발행자/니가타현 조에쓰시



의국어



JOETSU_NIIGATA

본지 게재 시설 · 촬영지

다카다성지공원(모토시로초)	04	15 신에쓰화학공업주식회사 나오테쓰공장(구비키구 니시후쿠시마)
간기도리 (오마치5)	06	니혼소다 주식회사 니혼기 공장(나카고구 니혼기)
간기도리(키타혼초1) / 구 이마이소메야(오마치5)	07	16 큐피트 벨리 스키장 (야스즈카구 스가와)
다카다 세계관(혼초 6) / 구 사단장관사(오마치 2)		리전프라자 조에쓰 아이스 아레나 (9월 하순~5월 말 · 시모몬젠)
가스가야마성터 우에스기젠신공상 (나카야시키)	08	17 남바고원캠핑장(나카노마타)
가스가야마성터 니노마루의 한 그루 은행나무 (나카야시키)	09	신에쓰 트레일 (야스즈카구 · 오시마구 · 마키구 · 이타쿠라구 · 기요사토구)
가스가신사(가스가) / 가스가야마신사(다이즈)		18 조에쓰 기요사토 호시노후루사토관(기요사토구 아오야나기) / 남바고원캠핑장(나카노마타)
조에쓰시립수족박물관 우미가타리(고치2)	10	19 나오테쓰 해안(무슈이와토) / 스키이트피아 높이랜드(오시카와구 쓰보노)
나오테쓰해안(무슈이와토)		조에쓰시 BMX장 (오누키)
나오테쓰 D51 레일파크(히가시마치)	11	구비키 자전거도로 (무슈이와토~이토이가와시)
에치고 도키메키철도 「설월화」		등불 회랑(2월 하순 · 다카시구 야스즈카구,우라가와라구,오시마구,마키구,산와구, 나다치구)
니가타현 철도 발상지 (나오테쓰역 자유통로)		24 bibit (혼초 4) / J M - D A W N (야마토 5)
호쿠에쓰급행 '유메조라'		웨어하우스 오마치(오마치 3)/우시다야 (오시마구 다밀)
나오테쓰항 전경	12	25 주식회사 에이에프그린(우라가와라구 이마구마)
나오테쓰항 캄트리 크레인(미나토마치1)	13	다카다성지공원 오텐프라자 어린이 센터(모토시로초)
나오테쓰항 사도기선 노리바(미나토마치1)		조에쓰시립미나미카와초등학교(구비키구가미요시)
조에쓰 화력발전소, 나오테쓰 LNG 기지(야치우라)	14	조에쓰시립오가타마치초등학교 (오가타구 도조쿠하마)
주식회사 아리사와제작소(미나미혼초1)		26 국립대학법인 조에쓰교육대학(야마야시키초) / 국립대학법인 니가타현립간호대학 (신난초)
		28 우노이케(오가타구)